

순천대 농업정보도우미 119팀

농촌 정보화 침범 "어디든 달려 갑니다"

학생 10명, 800여농가 8천여회 이상 방문
컴퓨터 교육도... "봉사정신 없으면 못해요"

초등학교 교감으로 정년퇴임 한 김우익(72·순천시 주암면) 할아버지는 농촌생활의 적적함을 인터넷 바둑으로 달래고 있다. 김 할아버지는 13일 평소처럼 컴퓨터를 켜지만, 갑자기 속도가 느려지면서 그대로 멈춰버려 당황했다. 컴퓨터를 다시 끄고 켜기를 수차례 반복했지만 마친 것이었다. 김 할아버지는 곧바로 '순천대 농업정보 119팀'에 도움을 요청했다.

'순천대 농업정보 119팀'은 농림부가 주관하고 있는 농업인 정보화 교육사업의 하나로 김씨를 포함해 10명의 학생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순천·곡성·구례·광양·여수·장흥·보성 등 전남 지역 800여 농가를 8천여 회 이상 방문해 컴퓨터 환경설정, 키보드 조작, 문서작성법, 인터넷 정보검색 등은 물론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치료해준다.



순천대 농업정보 119팀 대원들이 원격지원프로그램 활용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먼 거리에 있는 농가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19팀'은 전국 대학 농업인 정보화교육 시행 기관 평가에서 2002~2004년 3년 연속에 이어 2006~2007년 2년 연속 등 모두 5차례 농림부로부터 농업인 정보화교육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美대학 '가짜 박사'

교수 등 36명 입건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3일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비인가 미국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 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모 대학교수 박모(46)씨 등 3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국내 사립대 대학원에 진학한 혐의(업무방해)로 최모(35)씨 등 2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 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교육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현재 학술진흥재단이 학위 신고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36명은 2001~2005년 미국령 괌에 있는 A대학에서 한학기당 250만원을 내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 학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대학은 2001년 괌에서 설립돼 6개 단과대 형태로 운영됐지만 미국 내 대학학력 인정여부를 판가를 하는 고등교육인가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해 학위를 취득해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대학은 학교 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다 교직원도 학교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상태다. /연남뉴스

나원침 (7261) 김장두



Advertisement for KCC (Korea Consumer's Cooperative) with text: '다 좋은 건데... 신민시장 KCC', 'DS건설(주) KCC참로, 연수역 대학로 KCC참로, 시스텔참로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참로, 배민동 대학로 실리온·방수재·철삭재·타이프'.

올 상반기 전남지역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64명...작년비 2.2배 늘어

올 상반기 전남지역 음주운전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2.2배 늘었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남지역에서 5천9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58명이 숨지고 8천 65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명에 비해 2.2배 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천908건에 사망자 226명, 부상자 8천270명이 발생한 것과 비교해 사망자는 14.2%, 부상자는 3.5% 증가한 것이다. 음주운전과 노약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노약자가 95명(37%)으로 가장 많았고 ▲보행자 80명(31.1%)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 32명(12.4%)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37.7%, 48.1%, 10.3% 증가했다. 전남경찰청은 이에 따라 이날 도내 21개 경찰서에 교통사고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이륜차 교차단속 ▲단속 예고제 ▲협력단체와의 합동 캠페인 등을 시행하는 등 교통 비상근무 체제를 돌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피의자 대기실 대형벽화 광주 북부경찰서는 피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최근 피의자 대기실에 세계적 변화를 담은 벽화(가로 4mx세로 3.5m)를 설치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노래방 연쇄강도 징역 10년

광주지법, 상습·누범 적용 중형 선고

광주시내 노래방을 돌며 5개월 동안 강도행각을 벌였던 3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상습적으로 노래방을 털기는 했지만 한 업소에서 겨우 10만~20만원 정도만 훔쳤기 때문에 징역 10년은 의외의 중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재판부가 옥씨에게 적용한 법령 중 가장 큰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노래방 강도와 같은 '잡범'에게 살인범에게나 내려질 법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뭘까. 상습적으로 노래방을 털기는 했지만 한 업소에서 겨우 10만~20만원 정도만 훔쳤기 때문에 징역 10년은 의외의 중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재판부가 옥씨에게 적용한 법령 중 가장 큰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상의 '상습강도'로 범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누범 기간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3년 이내 범행을 저지르면 2배로 형을 가중하는 것으로, 옥씨는 2004년 2월 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월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범죄를 저질러 누범 기간이 적용됐다. 더욱이 옥씨는 단기간에 15차례 나 범행을 반복했고 여기에 징역 7년 이상이 처하도록 돼 있는 강도상해죄와 징역 5년 이상의 단순강도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성폭력 범죄자도 치료감호 받는다

성도착증 등 성적인 성벽이 있어 범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죄자도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해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정신성적 장애자(Psychosexual Disorders)를 치료감호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신성적 장애는 성적 성벽에 의해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성폭력범죄로 정신의학계에서는 정신성적 장애를 치료대상인 성적 문제로 인식돼 왔다. 현행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나 약물과 알코올중독자만을 치료대상으로 하고 있다. 치료감호법 개정안은 치료효과 극대화를 위해 형 집행 후 치료감호를 받도록 하고 검사의 치료감호청구서 정신과 전문의 등의 진단이나 감정을 의무화해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했으며, 공정한 정신감정 실시를 위해 국립감정센터에 전담 치료감호소 설치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연남뉴스

김승연 신드롬? "아들 때렸다" "금품 빼앗았다" 보복폭행 아버지 잇단 입건

광주에서 자식을 괴롭힌 가해자를 부모가 직접 보복 폭행하는 속칭 '김승연 신드롬'이 잇따르고 있다. '김승연 신드롬'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을 법적 처벌하지 않고, 아들이 맞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한 것을 빚대 붙여진 이름이다. 광주 북부경찰청은 13일 아들에게 금품을 빼앗은 가해학생들을 때리고, 한밤 중에 군대식 일차리를 강요한 P(42·광주시 북구 운암동)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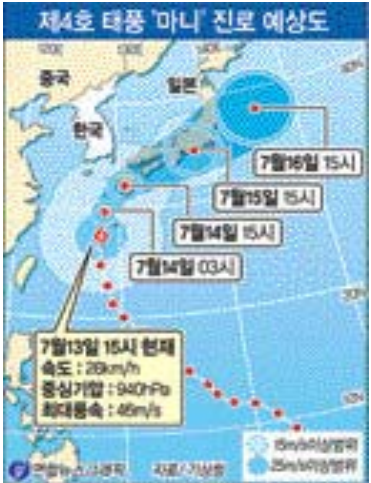
일 밤 9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동 공원에서 안모(14·광주 G중 3년)군 등 3명의 얼굴을 때리고 90여분 동안 '제자리 뛰기', '발굽 뛰기' 등 일차리를 쫓겨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 경찰조사 결과 P씨는 이를 전인 지난해 26일 밤 10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서 안군 등이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자신의 아들(13)을 협박해 자전거와 안경 등 1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데 격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현장에는 안군 등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있었지만 '자신의 아

들이 저지른 폭력 혐의에 대한 합의를 보기 위해' P씨의 폭력을 지켜봤던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광주 북부경찰청은 지난 9일 광주시 북구 J중학교 2학년 수업시간에 교실에 난입, 자신의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학생을 마구 때린 H(46·광주시 북구)씨를 폭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H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아들의 아들(13)을 협박해 자전거와 중 손거울에 머리를 맞아 상처가 났다는 담임 교사의 연락을 받고 교실에 들어가 이군의 얼굴을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July 14th (Saturday, July 1st). Includes a table for hourly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across various regions like Gwangju, Jeonnam, and Jeonbuk. Also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patterns.

태풍 '마니' 간접 영향 주말 최고 40mm 비

복상하는 제 4호 태풍 '마니'(MAN-YI)의 영향을 받아 주말인 14일 광주·전남 지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10~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 기상청은 13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남 남해안 지역(고흥·보성·여수·광양·순천·장흥·강진·진도)과 대흑산도·홍도에 강풍주의보(초속 14m의 바람이 예상될 때)를 발효하고 13일 밤에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전 지역에 강풍예비특보, 남해사부전해상에 태풍 예비특보를 내렸다. 태풍예비특보는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 풍속이 초속 14미터 이상인 폭풍 또는 호우·해일 따위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4일 광주·전남지역이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한 두 차례 비가 온 뒤 오후 늦게 개겠다"며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지역 10~40mm, 남해안 지역은 최고 60mm가 되겠다"고 전망했다. 휴일인 15일에는 광



주·전남지역이 태풍영향권에서 벗어나 특별한 비예보가 없이 구름이 많이 끼는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니'는 ▲중심기압 940hPa(헤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46m의 대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14일 오후부터 점차 세력이 약해져 16일께 일본 사토로 남동쪽 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美쇠고기 판매 중단하라"

FTA 운동본부·농민들 롯데마트 항의 시위

전국 대형유통점 가운데 롯데마트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돌입하자, 한미 FTA 광주 전남운동본부와 농민들이 롯데마트 상무점에 쇠뿔을 던지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미 FTA저지 광주전남운동본부와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 등에 따르면 13일 광주 서구 삼부지구내 롯데마트 점점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판매에 들어갈 경우 항의방문은 물론 불매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국 최초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들어간 롯데마트에 대한 항의표시로 상무점에 입점쇠고기 판매대에 쇠뿔을 던지기도 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조선대 총장 선거 김주훈총장 "불출마"

오는 9월 치러지는 조선대 총장 선거와 관련, 그동안 거취표명을 밀어왔던 김주훈 현 총장이 불출마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3일 오후 총장실에서

열린 내부 처장단 회의에서 "차기 총장선거에 나서지 않는 대신 남은 임기 동안 로스쿨 유치문제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후배 교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불출마하기로 했다"는 의사를 밝혔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사우나 상습 절도범 IP 추적 열미...사우나 옷장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 ○13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절도전과 5범인 유모(여·38)씨는 지난 5월부터 북구 신안동 B 사우나 등 8곳에서 옷장 자물쇠를 파손하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3천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것. ○유씨는 출신 휴대전화로 '도토리(사이버머니) 구입을 위해 소액결제'를 했다가 IP를 추적한 경찰에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출신 신용카드를 1회만 사용하고 버릴 정도로 용의주도했지만 자신의 미니홈피에 접속하다 IP 추적에 걸렸다"며 쓴웃음.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